

## 교지와 함께 성장하다

20816 선준빈

1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해 왔지만 글쓰는 활동에 부담을 느껴 계속 동아리에 남아있어야하나 고민했지만,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자의 글이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얼떨결에 부장까지 맡게 되어 부담감이 상당했다. 올 해는 학교생활 11년 중 가장 교무실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다. 그만큼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는데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처음으로 동아리 활



동을 위해 행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월 15일에 개최된 진해여고 개교1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기사에 작성할 사진 자료와 여러 기록들을 조사하면서 진해여고에 대한 자부심을 경험했던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리고 5월에는 교생 선생님들의 현장실습을 핑계삼아 생기발랄한 18명의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들께서 대답도 잘 해주시고 리액션도 다들 적극적이셔서 인터뷰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개인 기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하는 일임에도 여전히 쉽지 않았다. 평소에 책을 읽어야 했다는 후회도 밀려왔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인 ‘소셜 미디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해서 문장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앙케이트 결과의 통계자료를 제작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향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앙케이트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들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인터뷰 약속을 잡고 인터뷰 질문을 선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인터뷰 내내 대답도 잘 해주시고 호의적인 태도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가장 리더십이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한 마지막 목차를 정하면서 주제별로 파일을 취합하였는데, 교지 목차 정리는 처음 해봤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부원들과 의논하고 주제들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었다.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인지, 이제 제법 부원들과의 호흡이 잘 맞았고 정말 모두가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벌써 두 번째 편집 후기를 쓰고 있다는 지금이 믿기지 않는다. 아직은 교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목차를 구성하고 파일 정리까지 하고 나니 동아리의 마지막이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년보다 학생들이 할 일이 훨씬 많아져서 정말 힘들기만 하고 담당선생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힘든 만큼 성장할 수 있었기에 좋은 추억이고 교지편집부 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추

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부장이 됐을 땐 처음 해보는 역할에 불안하고 자리에 따른 부담감이 컸었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어 여러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리더십도 생기고 책임감을 가지려고 한 것 같다. 솔직히 성격상 누군가에게 할 일을 부여하고 재촉하는게 힘들어서 머뭇거리는 일이 많았는데, 계속하다 보니 이겨낼 수 있었다. 부원들이 잘 안 따를 땐 답답하고 지쳤지만, 그럴 때마다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기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2년 동안 교지편집부원이어서 즐거웠고, 부장을 맡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산호수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예순 한번째 산호수가 기대되며 일 년동안 함께 해온 동아리 부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